

로동신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3호 [루게 제24666호] 주제 103 (2014)년 9월 10일 (수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연방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각하

존경하는 김정은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당신께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친선과 호상존중, 선민의 원칙에 기초하여 발전하고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우리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건설적인 협조가 모든 분야에 걸쳐 적극적으로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이것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전반의 평화와 안전, 안정보장에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체 인민에게 행복과 복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웨. 뿌. 쥘

2014년 9월 9일

모스크바, 크레믈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쿠바공화국 내각 수상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친애하는 동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쿠바당과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당신께 편대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쿠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울 카스트로 루스

2014년 9월 9일

아바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일조우호 야마나시현대대표단이 꽃바구니를 드리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일조우호 야마나시현대대표단이 꽃바구니를 드리었다.

주식회사 사장인 가네마루 야스노부 단장이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씨가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9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주조 외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년경축 제일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현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 송고한 경의 표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이 9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등이 참가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는 경건하고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반만년전조상에 처음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든든한 터전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렸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았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터전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의의 정이 만수대덕으로 꽃피어 꽃피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씨가 씌여져있었다.

군중들은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애국애민의 헌신과 로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만경대혁명학원,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들에 인민군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여러 나라에서 인터넷에 게재, 단행본으로 출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를 1일 로씨야 이프루즈크인터넷홈페이지 《이프루즈크블로그소프트. 루》가 올렸다.

홈페이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부대들을 시찰하시는 사진문헌들을 각각 모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를 영국조선군정치연구

협회가 8월 21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기》를 오스트리아의 원에 있는 오제프 케바우에르출판사에서 8월 25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본사기자



온 겨레가 함께 안겨살 은혜로운 품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가 구현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라는것을 오늘 날 조선 각계가 공화국북반부의 현실을 통해 더욱 뜨겁게 새겨안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만경대혁명학원,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들에 인민군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

정견도 국가력력기구에 앞서 민중생활을 책임진 호주가 된다. 이북은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기에 억연 쇠퇴를 모르며 영원히 개화만발한다.

이북민중은 력사의 체험을 통해 사회주의를 생활로, 생명으로 새겨안았다. 민중이 나라와 정치의 주인, 경제의 주역으로 되고 문화와 예술의 창조자인 동시에 향유자로 되고있는 조 좋은 세상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고 여기는 이북민중이다.

하기에 한 신문이 북에서는 인민대중속으로 파고드는 정치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고 한것은 조금도 과장된 평이 아니다.》

인민군총정치부장이 연회에 참가하여 자신의 마음까지 함께 근로자들을 축하해주도록 하시겠다고 하면서 이것은 남조선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라고 신문들은 강조하였다.

《현황뉴스》, 《뉴스》 등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는 아가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지식인들을 적극 내세워주시고 보살펴주시는데 대해 《김정은원수님의 민중사랑에 머리가 숙여진다》, 《김정은원수님은 《위대한 사상이 위대한 현실을 창조한다》

민중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민중만세, 민중제일을 선언한 위대한 철학이다.》

이북은 이 독특한 민중중시사상을 초석으로, 기둥으로 하고있다. 그에 바탕하여 당과 정권, 제도가 서있다. 그래서 조선로동당은 향도자이면서도 민중을 자식처럼 돌보는 어머니가 된다.

《통일뉴스》를 비롯한 인터넷언론들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이것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주 강조하시는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지론이다.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6돐 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6돐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9월 4, 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는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행동으로 이 땅에 인민이 주인된 자유의 새 나라를 일떠세우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이 끝없이 융성번영할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으로 뚫어번지고 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평등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주석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과 국기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경축 66돐》이라는 글씨가 걸려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명도 따라 이 땅에 강성국가 건설하자!》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대회에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최봉태동지, 박도훈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김일홍동지, 김양건동지, 김평태동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태

제류하고있는 해외동포대표단, 방문단들과 동포들, 반제민주주의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는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 무관들, 외국손님들이 초대되었다.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인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리영길동지, 현영철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최봉태동지, 박도훈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김일홍동지, 김양건동지, 김평태동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태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강성국가건설사업수행에서 모범적인 일꾼, 영웅, 공로자들이 추석단에 나왔다. 추석단에는 또한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장 향수정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교민이 나왔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찬탄한 길이 빛내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의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명도 따라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대회는 《빛나는 조국》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공화국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국가로 강화 발전 시켜 나가자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전체 인민이 위대한 당의 명도 따라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강성국가건설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고있는 장엄한 시기에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6돐을 맞이 하고 있습니다.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자기 진정한 국가를 가지고 자주적인 자주의 삶을 누려온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9월 9일은 참으로 의의적이고 소중한 명절입니다. 뜻깊은 이 자리에서 전체 인민군정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이 땅에 인민대중중심의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고 우리 조국과 민족이 끝없이 번영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영리한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공화국의 영리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평등자 김정일동지가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이날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엄에 따라 공화국의 강화발전을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 있는 인민군정들과 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생을 다 바쳐 빛내여오신 주체의 사회주의국가,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국가입니다.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시련에 찬 투쟁의 길에도, 영광넘친 승리의 길에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있으며 공화국이 지닌 불멸의 위력과 높은 권위도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존함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 투쟁의 길에서 창조하신 인민정권 건설의 귀중한 경험과 해방후 이룩하신 건국의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여 주체37(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세우신 것은 로동계급의 국가건설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새형의 정권의 탄생이었으며 조국과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민족사적사건이었습니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혁명의 강력한 정치적무기를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

해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의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조국의 창공높이 탐험해가기가 70년째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70성상의 역사는 류례없는 난관과 시련을 헤치고 자주시대 정권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시며 우리 조국을 통성변역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거룩한 명도의 력사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 이끄시어 공화국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었으며 전인민적의 사회주의건설을 견디시며 우리 공화국을 세계가 칭송하는 영웅조선, 천리마조선으로,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빛내이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암살행동을 짓부시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두번다시 구원해주셨으며 가장 어려운 속에서 불멸의 국력을 다시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놓으시었습니다. 참으로 국가건설의 지도사상과 전통으로 보나 창건의 경위와 강화발전의 로정으로 보나 수령영생의 력사가 끝없이 흐르고있는 오늘날의 숭엄한 현실로 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국가입니다. 조국건설의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평등자로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강화발전되어온 성스러운 로정입니다. 자주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숨어두셨던 혁명신조였고 혁명방식이었으며 혁명신조였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혁명명도의 전기간 자주는 생명선으로 내세우시고 공화국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일관하게 고수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에 대한수님들의 이민주의의 국가건설리념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우리 공화국정권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철저히 구현하여왔으며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고 인민에게 군림하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끈질기 투쟁하여왔습니다. 사회주의원칙을 비롯한 국가의 법률도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어있고 국호도, 군대와 정권기관의 명칭도, 시대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도 《인민》이라는 말과 함께 불리우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공화국의 인민적정격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사회적인간의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아버지모신 사회주의혁명에서 승리한 자랑스러운 인민이라는 전력을 더욱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력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명도 밑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로 강화발전되어온 자랑스러운 년대기입니다. 이민주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한생의 좌우명이며 국가건설의 근리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공화국의 모든 로선과 정책, 모든 활동이 철두철미 인민의 리익과 요구를 옹호하며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것이요 일관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습니다. 공화국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된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이민주의의 국가건설리념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우리 공화국정권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철저히 구현하여왔으며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고 인민에게 군림하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끈질기 투쟁하여왔습니다. 사회주의원칙을 비롯한 국가의 법률도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어있고 국호도, 군대와 정권기관의 명칭도, 시대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도 《인민》이라는 말과 함께 불리우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공화국의 인민적정격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사회적인간의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아버지모신 사회주의혁명에서 승리한 자랑스러운 인민이라는 전력을 더욱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력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명도 밑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로 강화발전되어온 자랑스러운 년대기입니다. 이민주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한생의 좌우명이며 국가건설의 근리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공화국의 모든 로선과 정책, 모든 활동이 철두철미 인민의 리익과 요구를 옹호하며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것이요 일관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습니다. 공화국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되어온 긍지높은 로정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우리 공화국정권이 주체위업수행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튼튼히 다지는 데 각별한 관심을 돌려주시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일심단결을 혁명의 천하지대로 내세우시고 혁명대오의 사상지적, 도덕적리정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공화국의 사회정치적지반을 굳건히 마련하여주시었습니다. 천만군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으로 굳게 뭉치고 온 나라가 동지적으로 서로 돕고 이끄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게 된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이룩하신 참으로 고귀한 국가건설업적입니다. 우리 국가사회제도도 혁명이 멀리 전진하고 평등의 대가 바뀌는 중대한 시기에도 정치적안정을 확고히 보장하고 더욱 공고해지고있는것은 우리의 일심단결이 불패의것으로 다져졌기때문입니다. 오늘 미래와 그 추종세력들이 《인민》과 《민주주의》의 간판을 들고 우리의 일심단결과 국가사회제도를 아깝하게 비방중상하고있지만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땀과 눈물 없는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면모와 권위를 절대로 훼손시키지 못할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명도의 전기간 군사를 군사중의 군사로 내세우고 국방력강화에 모든 힘을 집중하시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인민군대를 천하무적의 사상과 신념의 강군, 백두산혁명강군으로 키우시었으며 국방군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워 우리 공화국을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자도 범접할 수 없는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빛내여주시었습니다. 지금 우리 혁명무력은 핵동맹을 획득하며 신성한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적들의 새 전쟁도발행동을 걸음마다 제압하고있으며 보름 틈틈히 다지는 데 각별한 관심을 돌려주시었습니다. 지난날 총 한자루 변변한것이 없던 강도가 외세의 총칼에 한도질 당하지 않으면 안되던 우리 조국에 제국주의강점국을 쫓아내며 백승만을 떨치는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위용떨치기 위한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이룩된 기적중의 기적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에서 후손대박을 누릴수 있도록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마련해주셨습니다. 새 세계 산업혁명의 불길을 지켜주시고 지식경제강국건설의 길을 열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명도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이 세계를 향하여 비약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릴수 있는 물질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었습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대업을 이룩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주시었으며 국제무대에서 공화국의 권위와 영향력을 끊임없이 높이고 내외관계를 급속히 확대발전시키시었습니다. 참으로 고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초인간적인 의지와 정력으로 이 땅에 불멸의 강국을 일떠세우시고 조국의 천년미래를 담보하는 모든 재부를 마련해주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같은 위대한 정치가, 결술한 국가명도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3 번 으 로 계 속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인민은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 굽이치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9월의 맑고 푸른 하늘에 람홍색 공화국기가 펄럭 휘날린다. 우리 인민모두의 삶의 요람이며 후손만대의 행복을 꽃피워주는 어머니 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화국창건 66돐을 맞이한 천만 군민의 가슴마다에 선군으로 존엄높은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나고있다.

뜻깊은 이날 우리는 이 땅에 굽이치는 다함없는 그리움의 물결에 마음을 싣고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았다.

태양을 따라 변함없이 우리를 인민의 총정기 그대도 화려한 꽃바다를 펼쳐놓았는가 광장공원에 피어난 갖가지 꽃들이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손저어 반기는듯싶었고 군상을 중심으로 솟아오르는 분수도 뜻깊은 이날의 환희를 노래하며 춤추는것만 같았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믿음의 기둥이고 주체혁명기의 승리적전진을 선도하는 기치이며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입니다.》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이 땅의 천만자식들을 반겨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를수록 한평생 모든 고난을 락판적으로 뚫고오신 절세위인들의 호방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듯싶고 우리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도 마음쓰시던 자애로운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이 가슴에 흘러드는 것만 같았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는 수많은 인민군관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대학생들과 소년단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젖어 들었다.

이 나라 아들딸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자기와 자기 가정의 고고작은 일들을 아뢰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숭엄한 모습들이 더없이 소중히 인가되었기때문이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싣듯 만날 수가 없었다.

절세위인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각계층 근로자들... 얼마나 아끼고싶은 수많은 사연을 안고있는 우리 인민인가.

따사로운 태양의 그 품속에서 값 높은 삶의 자옥을 새긴 사람들은 열매이며 평범한 인간들이 조국과 인

민이 기억하는 영웅으로, 참된 일군으로 자라난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은 또 얼마이던가.

얼마후 우리는 창공높이 휘날리는 공화국기를 바라보며 싣듯 자리를 뜨지 못하고있는 어느 한 중앙기관 일군인 최대룡동무를 만났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태양의 성지에 나뉘는 공화국은 우리를 위한 세대의 눈비를 다 맞았으며 조국을 찾아주시고 빛내어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그리움과 호모의 정이 불타오릅니다.》

격정에 넘친 그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의 눈앞에는 10대의 어린나이에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수십살상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시어 찾아오신 조국, 해방된 강토에 인민의 국가를 세워 인민들에게 진정한 삶을 안겨주시려고 마치고신 우리 수령님의 평생의 고고와 심혈이 가슴뜨겁게 안겨졌다.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이래로 불과 몇년밖에 안되는 청소년 때에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를 타승하고 그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영웅의 나라로 자랑될수 있는 것도, 모든것이 파괴된 전후 제

미우에 복구건설의 장엄한 노래를 울리고 공업화의 역사적과업을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하면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생태를 높이 쌓아올릴수 있었던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비범한 령도의 결과이다.

통남산의 맹세를 다지신 때로부터 조선혁명을 책임지시고 광활한 미래에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장엄한 투쟁의 역사를 새겨주시고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에 헌신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사수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는 사람들이 대화를 이룬 금수산태양궁전광장.

《마음의 기둥, 신념의 기둥으로 안고 사는 금수산태양궁전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가 있었기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가

수호되고 더욱 빛날수 있었으며 회색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어 우리 조국의 앞날은 찬란합니다.》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은총속에서 군사복무의 값높은 삶을 빛내이는 조선인민군 군관 백병진동무의 진심어린 말이였다.

만나는 사람마다 대원수님들의 한말씀에 대한 고마움과 자기들의 오늘과 같은 성장에 있던 자애로운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대한 이야기뿐이다.

광장에 특색있게 꾸러진 휴식터에서 정성들여 가꾼 수많은 나무들과 꽃관목들, 각이하게 뿔여져나오는 분수들을 바라보며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을 얼굴마다에 이처럼 훌륭한 태양청춘의 대화원을 마련 해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이 한껏 어려 있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신의주시 부분동 19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장영일동무의 가정도 만났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시고 여기 태양의 성지를 늘 찾아오고싶어 하던 이 나라 인민의 절절한 소망을

헤아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큰절을 드리고싶습니다.》

특색있게 꾸러진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의 한포기의 잔디, 한그루의 나무, 하나하나의 시설물들에 이르러가 저 어디에나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생의 모습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정성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뜨겁게 깃들여있어 누구나 쉬이 감동음을 깨지 못하고있었다.

이 나라의 평범한 노동자, 농민의 아들딸들도 마음껏 배움의 노래를 쳐도록 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그 사랑을 영원히 심장에 간직하고 산다고 하면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손재성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우리들은 과학의 최첨단을 통과하여 이 땅에 기여 사회주의문명강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청춘을 빛내어 왔습니다.》

정녕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넘쳐나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심장 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공화국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국가

로 길이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갈 철석의 의지였다.

뜻깊은 공화국창건기념일에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지만 그들이 다지는 맹세는 오직 하나이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처럼, 우리 원수님처럼 이 조선을 사랑하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우리 인민을 한눈에 안아주시며 온 강산이 환해지도록 맑게 웃으신다.

그렇다.

건국의 어버이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축복을 심장으로 받아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갈 신념의 맹세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태양의 축복이 넘쳐나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주신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 천하제일강국으로 찬란히 빛나리라는것을 확신하였다.

글 채희성
사진 본사기자 김철우



2 면에서 계속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공화국을 세상에 가장 우월한 자주적인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억연드높지 않는 토대와 양양한 절도를 가진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신 불멸의 업적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길에 빛날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오늘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국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더욱 뚜렷이 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김일성-김정일동지의 불멸의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하도록 하시고 끝없이 빛내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공화국정권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풀어나가며 대원수님들께서 열어주시는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곧바로 전진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영상 작품들이 모처에 태양의 모습으로 정중히 모셔지고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이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부러우신 행복의 씨앗들이 풍만한 열매를 맺고있는 참된 현실은 대원수님들의 성스러운 혁명력사가 즐거이차여 이어지고있다는것을 운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김정일동지의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중심주의의이라고 밝히시고 정권기판과 일군들이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

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밑에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언제나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됨을 더욱 빛내이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 것처럼 인민을 만들어가는 투철한 인민관이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조국평화에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 송도전국제소년단야영소,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건설체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있습니다.

공화국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력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이아달로 진행된 어머니조국이고 김일성-김정일동지의기치따라 나아가는 길에 부강조국의 미래가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확증해주고있으며 바로 여기에 공화국의 66년력사의 빛나는 총화라고 하겠습니다.

동지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는 것은 공화국정권의 최대의 사명이며 우리 인민의 혁명적무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다짐 하여 끝까지 계승완성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동지의 혁명적 유언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대원수님들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옹호하고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 공화국을 영원히 대원수님들의 존한과 함께 빛나는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국가로 끝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은 사회의 김일성-김정일동지의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공화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위력을 백배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고 원수님의 말씀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며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군, 전민이 하나로 같이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기풍을 세우야 하겠습니다.

김정일애국주의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의 4대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 우리 공화국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는 열렬한 애국자,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우며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그 어떤 침략자도 타승할수 있는 조국수호의 강력한 전위대, 선군혁명의 역적의 지지점으로 더욱 강화하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킴으로써 공화국을 한사코 힘으로 압살하려는 적들을 제압하고 사회주의조국을 철벽으로 지켜야 하겠습니다.

천제 인민들은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업, 건설, 과학기술을 비

롯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다하자면 정권기판들을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 수행의 강력한 정치적무기로 강화하고 그 역할을 백배으로 높여야 합니다.

모든 정권기관 일군들은 당의 유일적령도를 신념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는 결연한 투사,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앞장에서 이끌어가는 능숙한 지휘관, 당의 뜨거운 사랑이 인민들에게 가닿게 하기 위하여 열사적분투하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화국정부부서에서 한명 한대로 민족앞에 가로놓인 난관을 타개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해나간것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

을 거어어 실현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지침을 확고히 결지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공의 번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우리가 조국의 앞길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기가 무궁토록 휘날릴것이며 인민의 모든 꿈이 이루어질 찬란한 미래로 영원히 고무추동할것입니다.

모두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동지의 기치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서 굳게 공화국의 위상번영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동지의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지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혁명렬사들께 영광이 있으라!》, 《애국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영웅적조선인민군 령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글발들이 쇄여져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령사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참가자들은 령사들과 령사묘를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돌 경축연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 경축연회가 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연회장은 반만년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터전을 마련해주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연회에는 김정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영웅들, 공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경축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령사들과 령사묘에서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 있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연회에는 주요 여러 나라의 고위 국제기구 대표부, 무관부부들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이 초대되었다.

연회에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연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인 김영남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우리 인민이 백두산 천지에서 세우려오신 새 기발높이여 삼천만은 나섰다는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를 부르며 건국의 환호를 세기의 하늘가에 터치던 력사의 그날로부터 66년 세월이 흘렀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력사는 지난날 세계사에서 으뜸을 잃었던 식민지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세상에 존엄멸치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된 기적의 력사이며 자주시대 국가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긍지높은 력사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미증유의 간고한 시련과 백승의 위훈으로 수놓아진 이 력사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그 어떤 지정학적요인이나 령강들의 세력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민의 힘과 그 두리에 굳게 묻힌 인민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고귀한 진리를 보여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수천년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세워주시고 우리 조국이 영원히 번영할수 있는 민선로대를 마련하여주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정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었다.

그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애국유산인 공화국을 통성변명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세계

방면에 빛내이기 위하여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공화국정부는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총적목표로 내세우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도록,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세세년년 울려지도록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천명정상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적 령도따라 약동하는 젊음으로 신심드높이 비약하는 백두산대국의 노도와 같은 전진에 그 누구도 막을수 없으며 승리는 언제나 역사적이라고 강조하였다.

화환가자들은 우리의 운명이시며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명을 축원하여,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대성산혁명렬사릉, 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을 맞으며 9일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령사들과 령사묘에서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 있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현역렬사,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최봉동지, 박도춘동지, 양형섭동지, 김원홍동지, 김양건동지, 김평동지, 박법기동지, 오수용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내각부총리들, 우당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대무군 장병들, 평양시 근로자들이 화환진정에 참가하였다.

화환진정목이 울리는 속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인민부총리,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대무군 부대, 교육, 보건, 출판보도기관, 평양시 당, 정권기관, 시급기관, 공장, 농장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

되었다.

화환들의 명기에는 《혁명렬사들께 영광이 있으라!》, 《애국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영웅적조선인민군 령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글발들이 쇄여져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령사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참가자들은 령사들과 령사묘를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령군봉에 올려퍼진 신념의 메아리

주제 51(1962)년 8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날에 있는 일이다.

어느날 그이를 모신 교사야영생들은 혼련강변에 따라 혼련을 진행하였다.

혼련이 끝났을 때였다. 승리의 합성이 메아리치는 고지정점에 거연히 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산야를 굽어보시었다.

잠시후 오락회를 하던 야영생들은 그에게 노래를 불러주실것

을 청도했다.

요란한 박수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야영생들을 일렬히 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눈고낮은 산밭들이 멀리 뻗어간 저 북쪽하늘에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솟아있을것이다. 백두산에서 바로 우리 혁명의 행군길이 시작되었다. 지금 우리 세대들은 항일혁명선열들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그 길을 이어 힘차게 걸어가고 있다. 우리는 혁명의 무기, 계

급의 무기를 더욱 역세게 틀어쥐고 이 땅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

우리 시대앞에 나선 숭고한 의무를 생각하며 잠시 말씀들을 읊으셨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늘도 이 감정을 시형에 옮겨놓고싶다고 하시며 즉흥시를 읊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저택처럼한 읍성이 산정에 메아리쳤다. 우렁찬 박수소리가 뒤흘마당 려져올랐다.

바위우에 높이 서서어 천만대군을 이끌고 백두의 행군길을 이어 삼천리강산을 탁연으로 꽃피우신 맹세를 즉흥시에 담아 퍼떡하시는데 그의 모습에서 야영생들은 위대한 백두산장군, 절세의 명장을 보았다.

우리 인민이 이룩하는 력사의 봉우리 《령군봉》은 오늘도 그날의 사연을 전하며 천만군민을 부르고있다.

영원히 백두의 행군길을 이어 가라.

본사기자



대성산혁명렬사릉, 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 진정

